

오색 평창

Pyeongchang 2018



역대 최대 규모

92개국 2925명 소치보다 4곳 늘어 미국 242명 최다...한국 144명 에콰도르·싱가포르 등 6개국 데뷔

평창동계올림픽은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88개국이 참가했던 지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늘어나면서 참가 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은 역대 동계 올림픽 역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개최국인 대한민국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5종목, 46명)보다 3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6종목, 71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적도의 나라'로 유명한 에콰도르(크로스컨트리스키)를 비롯한 말레이시아(피겨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싱가포르(소트트랙), 에리트레아(알파인스키), 코소보(알파인스키), 나이지리아(봅슬레이, 스킨레이팅) 등 6개 나라는 평창을 통해 동계올림픽에 데뷔한다.

이번 대회는 100개 이상의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이기도 하다. 앞선 소치 대회보다 4개의 금메달이 늘어나면서 실상 70개, 비상 3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경쟁한다.

'설원의 서커스' 스노보드 빅에어,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 등 6개 종목은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돼 첫 금메달리스트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

백남준·이중섭·김환기 작품전 거리 공연·K-POP 콘서트 등 매일 80여회 프로그램 쏟아져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되는 올림픽'을 기치로 다양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조직위원회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중심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2월9~25일) 매일 최대 80여회, 패럴림픽 기간 동안(3월9~18일) 매일 최대 70여회 등 총 1900여회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창 올림픽플라자의 대표 문화시설은 문화ICT관으로 추위를 녹여줄 빛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1층 미디어아트관과 근현대미술관에서는 백남준, 이중섭, 김환기 등 'Light PyeongChang 빛' 주제로 한국의 대표 예술작품들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목재가옥으로 조성된 전통문화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공연과 시연이 매일 펼쳐지고, 전통 다례체험도 진행된다. 매일 오후 3시 강릉 올림픽파크에서는 취타대와 전문공연단 60여명으로 꾸려진 퍼레이드

'수호랑과 반다비의 위대한 여정'이 펼쳐진다. 강릉 올림픽파크 종합운동장 앞에서는 스트릿 댄스, 인디밴드 버스킹 등 다채로운 거리예술 공연이 즐거움을 준다.

경기 생중계와 응원이 가능한 라이브사이트에는 K-POP 콘서트, 난타 등 유명 공연이 열린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지난 1월 19일 국립발레단 공연을 시작으로 패럴림픽대회 종료 시까지 총 80여회 공연이 진행된다.

최첨단 ICT

경기장마다 5G·초고화질 영상 스노보드 VR 체험·서빙하는 로봇 8개 국어 AI 통·번역 서비스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화질(UHD), 인공지능(AI), 즐거운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첨단과학기술의 향연 무대이기도 하다.

2019년 3월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인 대한민국은 경기장에 오는 이들에게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장에서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제공하는 타임슬라이스,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싱크뷰, 중계 화면에서 특정 시점·위치를 골라볼 수 있는 옴니포인트뷰 등 5G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스마트폰용 모바일 가이드 앱은 개인 위치에 기반해 교통, 관광, 숙박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경기장의 정보를 3D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를 HD TV 화질보다 4배 선명한 4K UHD로 방송해 올림픽의 감동을 극대화한다.

한국어, 영어로 된 간단한 질문은 인공지능(AI)콜센터 안내 도우미가 응답한다. '지니톡' 앱은 한국어와 8개 언어의 자동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의 장벽을 없앴다.

평창 ICT 체험관에서는 봅슬레이나 스노보드 등을 VR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체험할 수 있다. 경기장, 선수촌 등 곳곳에 안내, 음료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하는 11종, 85대의 로봇도 투입된다.



평화

북 5개 종목 46명 선수단 참여 남북 9년만에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올림픽 첫 단일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 강원도에 북한 선수단이 찾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후진선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참가를 주저하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들이 참가하는 평화올림픽·안전한 올림픽이 됐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은 숨 가쁘게 전개됐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1월 15일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1월 17일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을 거쳐, 1월 20일 스위스로 간 소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관계 장관 및 조직위원회가 4차 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총 5개 종목에 46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선수 22명, 임원 24명) 참가, 남북한 선수단의 개회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이었다. 남북한 선수단 개회식 공동 입장은 올림픽 역사상 네 번째, 단일팀 구성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다.

북한의 참가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 조성의 전기가 마련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정신과 가치가 실현된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환경

'저탄소·그린·지속가능' 올림픽 6개 경기장 녹색건축물 인증 지속가능경영체계 국제인증 획득

환경과 스포츠가 상생하는 환경 올림픽 구현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탄소 올림픽', '그린 올림픽', '지속가능한 올림픽'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최초로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풍력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 자발적 기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상쇄에 노력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단지 건설, 경기장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대회 기간에 필요한 전력 전량을 확보(필요량 194MW, 발전량 203MW)했다.

전기차 150대, 수소차 15대 등 친환경 자동차도 올림픽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린 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경기장 건설로 훼손된 산림면적의 2배 이상을 복원하는 작업과 생태보호지역 지정, 멸종 위기동물 증식·복원 등 생물 다양성 증진 작업도 이뤄졌다.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신설된 6개 경기장은 모두 녹색건축물 인증(G-SEED)을 받았다. 강릉 올림픽파크 및 시민체육공원은 쓰레기 매립부지에 조성하였다.

환경홍보관에서는 시민참여 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지속가능경영체계 국제인증(ISO20121)을 획득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